복음이 속임수처럼 보이는 이유

(역대하 32:1~19)

6.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7.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앗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8.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11.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12.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13.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오늘 말씀 중심으로 <복음이 속임수처럼 보이는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복음이 속임수처럼 보이는 이유’
우리가 지금까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정직하고 선하게 행하였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성전을 더럽히고 문을 폐쇄하고 성전 뜰에 이방 우상들의 제단을 만들었던 것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전국가적 행사로 만들어 선민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십일조까지도 활성화시킴으로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오직 제사와 하나님 찬양에 평생을 몰두할 수 있도록 정비시켰습니다.
그러던 중 앗수르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본문은 열왕기하에서 나오는 기록과는 좀 다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앗수르의 침공을 1차와 2차 침공으로 나누어서 설명했었습니다. 1차 침공 때의 히스기야는 급박한 위기상황 앞에서 신앙심을 가지고 대처하지 못하고 막대한 금과 은을 바침으로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 본문에서는 1차 침공

은 빼고 2차 침공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대기는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과 연관된 이야기를 재료로 삼아 복음을 이야기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복음을 생활화하는 자가 앗수르의 침공과 같은 위기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관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산헤립의 1차 침공이 생략되고 2차 침공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의도를 따라 본문을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2차 침공 때의 히스기야는 1차 침공 때와는 다르게 본래의 믿음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유다 백성들에게 앗수르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앗수르 왕을 따르는 군대가 십팔만 오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무자비하고 강력하기로 소문난 앗수르의 군대보다 훨씬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시고 적들과 싸우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안심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안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백성들이 성전 생활화를 통하여 복음을 생활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내용을 성전의 생활화를 통해서 삶에서 실현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의 말이 유효해질 수 있었고 안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 코앞에서 무자비하다고 소문난 앗수르 군대가 진격해 오고 있는데 왕의 한 마디로 인해서 안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전해 듣고 앗수르 왕 산헤립은 신하를 보내 편지를 읽게 합니다. 이를 통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의 사이를 이간질 시키고 선동하고 회유하려고 합니다. 1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민족과 나라의 신들도 앗수르를 제지할 수 없었고 온 천하를 정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앗수르가 보기에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에 의한 구원을 믿는 것도 속임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꾀었다는 말은 단순한 비난이나 이간질을 위해서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앗수르 왕 산헤립의 눈에는 정말로 히스기야 왕의 말이 말 같지도 않게 여겨졌고 실제로 백성들을 속여서 멸절로 이끌고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을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

라'라고 합니다.
앗수르 왕 산헤립의 시선에서는 성전을 생활화하는 자들의 태도가 허무맹랑하고 완전히 꾐에 속은 것이며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생활화를 할 때에 다른 사람들 눈에 얼마든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속임수 같이 보일 때에야 그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이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복음이면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속임수 같고 꾀이는 것 같이 느껴져야 정상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속임수처럼 보이는 부분이 없으면 복음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과 십자가를 생활화하자는 말이 왜 속임수처럼 느껴져야 하는 것일까요?
산헤립은 11~12절에서 히스기야를 고발하며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일찍이 유다 백성들은 산당에서나 곳곳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이 모든 산당과 제단들을 없애고 오직 예루살렘성전에 있는 제단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개혁을 했습니다. 산헤립 생각에는 이것이 무척 바보같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정말로 여호와라는 신을 믿고 싶다면 전국에 제단을 만들고 모든 산당에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보 같은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국의 산당과 제단을 없애고 오직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종교관에서 볼 때에는 어느 신도 이런 행동을 기뻐할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의 신들도 앗수르의 진격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유다는 산당과 제단을 허물고도 여호와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으니 신의 도움을 받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히스기야의 목을 쳐서 가져오면 백성들은 살려주겠다는 제안을 했던 것인데, 여기에 복음이 속임수처럼 보이는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이 산당과 각 제단에서 드려지던 제사를 막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찌됐든 제사가 드려지면 될 텐데 굳이 성전에서만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지닌 한 가정이 있습니다.
똑같이 여호와의 제단으로 가는데 아빠는 산당으로 가고 엄마는 성전으로 갔다고 합시다. 아빠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과 열망을 그대로 가지고 산당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양과 소와 염소를 죽여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성의를 들였으니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신나서 집으

로 돌아옵니다.
한편 성전으로 향한 엄마는 성전에서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제사장은 그 마음에 성전의 평면도를 대입해봅니다. 지성소의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상징하는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었던 것처럼, 마음의 지성소에 소원의 시작점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음의 지성소에 사업의 성공과 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분향단의 뜻하는바 사업이 잘되는 열망에 이어서 떡상이 의미하는 대로 사업으로 돈을 추구하고 그로 인해 만족하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의미하는 등대가 뜻하는 대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사업을 잘 되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여기며 방해하는 것은 나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부흥이 기준점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때에 제사장은 마음의 지성소에 담은 사업이 잘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어린양과 함께 번제단에서 죽게 합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돈 벌기를 바라는 소원을 담은 것이 죄악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의 인도대로 마음의 지성소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셔 들이고 분향단의 의미대로 추구하게 하며 떡상의 의미대로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만족하도록 합니다. 또한 등대가 의미하는바 하나님이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따라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태가 다릅니다. 아빠는 여전히 사업이 잘되게 해달라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왔고, 엄마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랐던 마음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왔습니다. 아빠는 사업에 대한 기대에 차 있지만, 엄마는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는 하나님께서 사업을 포기하라고 하신다면 포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속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사업으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만족하려는 것이 무엇이 잘못 되었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성전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이구아수 폭포, 그랜드캐니언 같은 대자연 앞에 서면 너무나 작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대자연조차 좁쌀처럼 여길 수 있는 큰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다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임수라고 할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나에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도록 요청을 하십니다.
내 마음에서는 사업이 잘되면 너무 기쁠 것 같은데 그것은 가짜 기쁨과 만족이므로 포기하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속임수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은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배우

자 대신에 하나님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니 속임수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8절에서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라고 담보 없는 약속을 합니다.
사업에 대해 죽은 엄마가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사장은 성전 앞에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를 가리킬 것입니다.
사업으로 얻으려 했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또한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려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할 때에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뜻하는 대로 '그가 세우실 것이고 그의 능력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것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앗수르의 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싸우시리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앗수르 군대 대신에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산헤립의 눈에는 이러한 말들이 다 속임수처럼 보였습니다.
실증적으로 이제까지 앗수르의 군대와 싸워서 이긴 나라가 없고 신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세력을 예루살렘으로 국한시키고는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속임수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헤립의 귀에는 속임수처럼 들리는 말을 들은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안심합니다. 이 백성들의 믿음이 보통이 아닙니다. 성전 생활화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속임수입니다. 더군다나 그럴 듯 하고 달콤하기는커녕 억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자식이 잘되면 기쁠 것 같은데 절대로 자식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반드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족과 기쁨의 근거인 자식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통해서 분향단의 의미를 만족시키고 떡상의 의미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진짜 속임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식으로 사업의 성공으로 멋진 여자와 결혼함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야 말로 마귀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성전의 구조는 사람의 마음을 본뜬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에도 지성소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과 등대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볼 때에는 똑같지만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속임수를 고수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속임수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서 안심하는 자들이 택함 받은 선민일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꾐에 속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을 속임수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신다는 야긴과 보아스의 약속은 그들에게 속임수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것이냐고 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종교심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다는 말은 결코 믿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완전한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도록 전해야 합니다. 일견 일리도 있을 것같이 보이는 복음이란 이미 전하는 자 안에서 훼손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속임수처럼 보여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완전한 속임수로 보여 지는 삶을 기필코 살아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